

## 학회지에 거는 기대

문 연 준

Mun, Youn-Jun

광주 · 전남지부장, 동신대 건축공학과 교수

원고청탁을 받고 그간의 먼지 덮인 학회지를 주마간산격으로 훑어 보았다. 초창기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학회에 대한 애정과 애착만으로 정성을 쏟은 흔적이 여기저기서 배어나온다. 초창기부터 용어정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헌신하셨던 분들, 건축공시표준시방서의 작성, 학회지 발간의 계간, 격월간, 월간화 등...

그동안 책상위에 전달된 학회지를 무심코 몇장 넘겨 보고는 책장에 꽂아두곤 하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물론 최근 학회지에서 다루고 있는 관심있는 몇몇 특집부분은 예외이지만...

무릇 50년이라는 학회역사... 그 뒤안길을 되새겨보면서 새삼스레 놀라움을 감출길 없다. 선배, 원로 건축인 여러분이 고쳐하고 감내해 냈을 시간들을 생각면서 숙연한 마음 금할 길 없다.

최근의 학회지는 어느 때보다 내용이나 구성, 디자인면에서도 손색이 없다고 여겨진다. 나날이 학회가 새로워지는 느낌을 받기에 족하다. 가끔 책자의 여유가 있으면 관심 둘만한 학부생에게 전하기도 하며, 전공 레포트의 참고문헌에도 학회지를 인용하기도 한다. 어쩌다 연구실에 들른 설계실무자들도 특집기

사의 제목에 관심을 표시하기도 한다. 그만큼 다양하고 알찬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학회지가 유익한 정보의 매체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편집자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되, 항상 개선의 여지는 있는 법이다. 또한 원고청탁 내용도 회지가 갖추어야 할 역할이나 방향을 재점검해보는 의도인 바, 나름대로 느끼고 있는 회지에 대한 기대와 개선점을 몇가지 적어보고자 한다.

첫째, 학회지의 역할에 대한 원론적 개념의 정리이다.

많은 분들이 주로 지적하고 있듯이 “연구와 계몽”이 학회의 주된 기능이라면 어느 한 쪽이라도 소홀히 헤서는 안되는 것이다. 연구 기능은 그동안 학회가 지속적으로 담당해온 주요역할이었다면 계몽이라는 분야는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안문제에 대해 건축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회원들을 계몽하며, 그것들이 정부의 시책이나 정책에 융해될 수 있는 역할은 실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너무나 아카데미한 사항만이 아닌 현실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학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담아내는 역할은 우리 모두가 갈증을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주로 이러한 문제에 특집의 포커스를 두어야 하리라 본다.

둘째, 실무경험담의 소개란을 마련하자.

학회회원의 대다수가 실무에 갈증을 느끼는 교수나 대학원생이며, 기타의 건축실무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러다 보니 딱딱한 이론 중심의 연구내용에 관심을 두는 이는 관련연구종사자에 국한되며, 많은 다수는 관심을 들여 기획한 학회지의 내용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시도한 공법이나 노하우, 실패담 등을 소개한다면 회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또한 책이나 문헌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내용을 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얼마나 유익할까?

셋째, 다음 호에서 다룰 테마를 미리 예고하자.

학회지가 전달되고서야 그 내용을 알게 하는 일방적 전달방법보다는 미리 다음 호에서 다룰 테마나 의도를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기대감을 갖게 하거나 관심있는 회원들의 투고도 기대할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본다.

넷째, 학회지 발송에 관한 문제점

학회지가 나오기까지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월간 간행체제로 바뀌면서 발행 호수와 일자가 약 2개월의 차이를 보임으로써 학회업무의 신속함이나 신뢰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슈가 없을 때는 과감히 합본을 발행하는 등 학회지 발송 시기를 맞춰주기 바란다. ☐

## 건축학회지에 대한 의견 및 바람

신 부 중

Shin, Bou-Jung

전북지부장, 전주공전 건축과 교수

조선건축기술단 시절인 1947년 3월에 『朝鮮建築』 창간호가 발간되었으며 학회명칭이 조선건축기술단에서 대한건축학회로 정착되었다. 그후 1955년 6월에 다시 『建築』 창간호가 발간된 후 1996년 1월호로 통권 200호를 발간하게 됨을 대한건축학회 회원의 한사람으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뿌듯한 자부심을 갖기도 합니다.

지나온 50여년이라는 반세기동안 대한건축학회지는 시론·건축단상·특집·자유기고·학회활동·신기술 소개·뉴스리뷰 등 알찬 목차를 통하여 회원은 물론 건축과 연관을 가진 수많은 건축인들에게 미래의 건축을 제시해 주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의 건축사를 날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데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회지편집위원장님과 각 회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더욱더 알찬 내용의 학회지가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 학회지를 읽을 수 있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

회원의외도 건설업체·건축사무소·건축

관련기관 등에서도 회지를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건축인의 유대관계, 산학연계관계, 건축학회의 위상 등이 크게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 회지에 대한 의견

## 학회지의 진일보

구 본 덕

Koo, Boug-Deok

정회원, 영남대 건축공학과 부교수

4년전, 서울생활 20년을 마치고 부산생활을 시작하면서 피부로 느낀 점 중의 하나는 바다를 면하고 있는 지방고유의 색다른 풍광과 향토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풍성한 인심

2.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의 지면을 넓혀야 한다.

삼풍백화점 붕괴 등 국내에서 범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함으로써 단층의 조적벽체면에 약간의 균열이 발생해도 건축주는 불안스럽게 여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본다. 학회지를 통해서나마 설계에서부터 시공, 완공후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줌으로써 건축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 같다.

3. 건축신기술 소개란을 넓혀야 한다.

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개발되면 학회지를 통해서 습득할 수 있도록 소개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학회지가 건축발전의 선봉자가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지부학회에 발송되고 있는 학회지의 권수를 20여부 증량해 주면 회원외에도 지부에서나마 지방 건축관련기관에 발송해 줌으로써 지부회원의 배가운동 및 건축학회의 홍보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며 다시한번 200호 특집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ㄹ

과 함께, 학생, 교수, 일반 건축인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배어 있는 "서울에 대한 강한 지향성과 비교심리"였다. 지금은 부산을 떠나 대구생활을 반년째 하고 있지만, 아마 이곳에

서도 부산에서와 비슷한 느낌에 접하게 되지 않나 생각된다. 결국 이러한 생각은 서울 이외의 모든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다수 건축인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이라 여겨지며,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안은 거의 느끼지 못했던 점이기도 하다.

평소, 학회논문집에 논문을 발표하는 일 외에는 학회활동이나 행사에 별다른 관심을 못 기울여 온 입장에서 지령 200호를 맞은 학회지에 대한 의견을 쓰자니 결국, 이미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고 늘 생각하고 있는 점을, 지방에 있는 학회회원의 입장에서 또다시 서두에 적게 되었다.

건축학회가 현재와 같은 연륜을 쌓이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술한 고생을 겪으셨을 건축계의 원로, 선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건축학회를 비롯한 학회운영의 전반적인 면에 걸쳐 서울 중심일변도의 체제에서 보다 과감하게 탈피하여 지방 건축인들의 소외감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아닌, 실천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몇 가지 크고 작은 세부적인 바람들을 적어본다.

우선, 학회내의 크고 작은 의사결정과정이나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면 한다.

크게는 학회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에서부터, 작게는 학회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선정, 학회지에 실리는 각종 원고의 필자선정에 이르기까지, 보다 예측가능하고 객관적인 원칙과 과정에 따라 결정되었으면 한다. 예를들어 본인이 진정으로 쓰고싶은 내용의 글은 별로 쓸 기회나 창구가 없고, 평소 거의 생각않던 내용에 대한 원고의뢰가 갑자기 들어오는 수도 있는 것도 문제인데, 현재와 같은 자유기고문이나 개인 활동 보고란 등을 통해 이러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기에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본다(여기에는 물론, 회원 개개인의 노력과 협조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회지의 편집방향도 여러가지 현실적 실행문제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 가능한 연간의 기본적인 편집방향(이것이 힘들면 6

개월 단위로라도)을 연초쯤에 미리 밝혀서 편집에 대한 다양한 의견청취의 장을 마련하였으면 한다. 이렇게 되면 각종 특집호에 대한 자발적 참여의 폭도 넓어질 것이고, 독자들의 입장에서도 다음호, 그 다음호에 어떤 내용이 실릴지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높아지고 학회지에 대한 심정적인 참여의식도 따라서 커지리라 본다.

그리고 예를들면, “대학 순례” 같은 고정코너를 만들어 국내, 외 각 대학들의 여러가지 현황과 특징들을 연속적으로 소개하는 것도 잡지가 지녀야 할 재미와 흥미의 요소를 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학회내의 각 분과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내용, 건축관련 소규모 학회나 학술모임에 대한 소개나 근황 등도 보다 상세하게 게재되었으면 한다.

그 반대로, 학회지를 보면 의례적인 인사말, 축사 등이 다소 많지 않나 생각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 전형적인 예로서 이번 호의 예상 목차를 보면, 내용 전체가 권두언, 축

사, 차사, 단상, 회지에 대한 의견 등으로 채워져 있고 전문학회지로서의 내용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물론 200호 특집에 따른 예외적인 편집으로 보여지긴 하나, 본인의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200호 특집을 독자들이 잘 읽지 않는 축사 등으로 채우는 것 보다는 200호 특집답게 오히려 평소보다 더욱 건축적 내용과 정보가 가득찬 방향으로 편집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모처럼의 축하지면에 비판의 내용을 많이 적게 되어 송구스럽게 여겨진다. 몇 해전, 건축학회에서 발간된 건축백서를 본 타과의 교수님들로부터 건축학회는 정말 잘 운영되고 있다는 부러움에 찬 칭찬을 들었을 때, 그리고 나날이 좋아지는 건축학회의 편집내용과 형식 등을 보면서, 본인보다는 몇 배나 건축학회에 애정을 가지신 많은 분들의 땀의 결실로 잘 이루어져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드린다. ㄷ

## 회지에 대한 의견

# 「건축」의 미래상

김 원 갑

Kim, Won-Gap

정회원, 경북산업대 건축공학과 조교수

## 1. 정보사회에서의 저널리 역할

벽에 부착된 대형 액정패널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의 홍수, 개인의 신상명세로부터 일상적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적 활동들이 컴퓨터에 의해 제어되고 통제되는 사

회, 테리 길리엄의 영화 ‘브라질’에서부터 리들리 스코트의 ‘블레이드 러너’, 빔 벤더스의 ‘이 세상 끝까지’(Until the end of the world) 등 수많은 미래영화들이 그리는 사회의 모습은 분명히 각종 정보들의 홍수 속에서 개인의 아이덴티티마저 그 속에 흡수되

어 버리고 위험하게 맡겨져 버리는 정보사회의 암울한 풍경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카프카의 소설에서 예견되었듯이, 정보에 의한 인간성의 상실이란 주제는 20세기 초부터 이미 대두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21세기를 5년정도 남겨놓고 대망의 '용감한 신세계'(Brave New World)를 향해 카운트다운해가는 현 시점에서 그러한 비극적 풍경(혹은 외부의 낙관적 풍경)들은 점점 현실로 접근해오며 우리를 어쩔 수 없는 적응상태로 만들고 있는 듯하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분명히 정보들 자체의 자생적 매커니즘에 의해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을 것이며, 건축,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매체들 역시 그것에서 예외 일 수가 없을 것이다.

수많은 정보들의 홍수 속에서 전문 저널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며, 상황에 맞는 변신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그리고 이러한 변신은 전문화와 차별화, 혁신화들을 통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금세기 초의 다양한 건축적 이방가르드들의 실험들, 그리고 모더니즘 건축의 새로운 실험들이 자신들의 기관지와 저널들 - De Stijl로부터 De 8, 바우하우스, Mecano, Veshch, ABC... 등 수많은 종류에 이르는 -에 의해 발표되고 그것들의 전문적이고 실험적인 연구들에 의해 결국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을 설명해준다고 볼 수 있다.

## 2. 전문성의 확보

학회지의 발행은 논문집의 발행과 함께 학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한건축학회의 회지 「건축」은 이번엔 통권 200호를 맞이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지는 그동안 다양한 학술적 주제들로 이루어지는 논문집과는 별도로 학회의 활동사항 및 건축계의 각종 정보들을 게재함으로써 정보 전달매체로서의 역할은 물론, 각 권별로 특정한 주제를 설정하여 그 주제에 대

한 다양한 필진들의 의견을 게재하고, 나아가 논문집에 실린 논문들의 초록을 소개하여 학술지로서의 역할까지 같이 병행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보의 전달과 학술적 기능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하는 한편, 학회 활동의 소개를 위해 시도한 여러가지 기획들이 오히려 특정 주제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어렵게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전문성의 결여를 초래하기도 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정된 지면에서 기존의 다른 저널들이 다루는 정보들을 함께 소개하며, 학회 활동 및 회칙의 소개, 그리고 주제별 논문들의 편집을 동시에 하는 것은 자칫 산만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기존의 상업적 저널들과 달리, 한정된 경제적 여건의 학회지의 경우에 타 저널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편집되고 운영되는 것은 결국 내용의 질적 향상보다는 형식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될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시사적 이슈들에 대한 소개 역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그때 그때의 시사적 이슈들의 신속한 소개가 저널의 중요한 역할들 중의 하나이지만, 상업적 저널들과는 달리 학회지로서의 전문성과 차별성을 지니기 위해선 시사성에 대한 집착보다는 건축의 학술적 관점으로서의 꾸준한 탐구가 더욱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축」지에서 '92년 한해동안 시도했던 물과 흙, 나무, 빛, 불, 금속 등과 건축과의 관계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은 학회지에서 다룰 수 있는 건축의 본질적 주제들에 대한 훌륭한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그러한 기본적인 학술적 주제들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상업적 저널들과의 차별성 뿐만 아니라 「건축가」지나 「건축사」지 같은 다른 비상업적 저널들과도 구별되는 독자적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 주제의 다양한 설정

학회지의 특집 주제는 물론 학술적인 방향으로 되어야 하겠지만, 그 주제의 설정은 보

다 다양하고 실험적인 것들에 대한 탐구가 가능할 것이다. 물론 그동안의 「건축」지의 주제들은 다른 상업적 저널들과는 달리, 건축계의 다양한 이슈들 및 영역들을 독자적 관점으로 꾸준히 망라해온 것이 사실이다. 각종 특수 건축물의 디자인과 기능, 구조, 재료, 시공 방식들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하여 건축과 관련 타 영역과의 관계에 대한 본질적 탐구, 건축과 도시와의 관계, 건축 교육의 문제점, 혹은 환경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건축」지가 다루었던 특집 주제들은 그 다양함과 학술적 밀도로서 많은 건축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길잡이의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21세기를 목전에 둔 현 시점에서 「건축」지의 역할은 미래의 한국 건축을 이끌어가기 위한 다양하고 적합한 주제들의 설정에 의해 더욱 크고 중요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주제들의 탐구로부터, 20세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현대 건축이 시도해온 다양한 작업들을 정리하고, 21세기의 새로운 건축 환경에 대한 가능한 미래적 비전들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건축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길잡이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 회지의 기능과 역할

김 태 일

Kim, Tae-Il

정회원, 제주대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학회별로 성격이나 기능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학회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 학술의 연구와 장려로 나눌 수 있다. 학술의 연구는 연구성과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논문집에 발표됨으로써 학술적인 교류의 영역을 넓혀 갈 수 있다.

학회가 가지는 또 하나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학술의 장려는 관련정보의 교환 및 제공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현대사회의 새로운 조류를 정보화사회, 국제화사회, 고령화사회, 도시화사회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는 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사회변화의 흐름이라는 연장선에서 볼 때, 21세기 건축분야에서의 정보교환 및 정보제공의 매개체로서 회지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건축학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양성과 전문성이라는 이원적 기능으로 분류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다양성에서 본다면, 회지는 보다 다양한 정보, 보다 면밀하게 기획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교환의 장(場)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회지라는 의미로서 사용되는 리뷰(Review)의 용어는 평론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다양한 사물의

가치와 의견 등을 비평하고 논하는 것이 회지의 기능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계와 실무종사자, 교수와 대학원생, 전문인과 비전문인, 건축분야 이외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가할 수 있는 장(場)을 제공함으로써 관련분야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과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각 분야의 정보교환이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수동적인 형태로서 단순한 정보교환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제시가 가능한 형태로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게시판 기능의 일환으로 회지의 일부분을 할애하여 '정보게시판'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한다. 다양한 심포지엄이나 강습회, 연구비신청 등 회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보다 적극적인 정보교환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문성에서 본다면, 회지는 정보의 가치성을 높여 보다 전문화된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학회에는 많은 위원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능동적인 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활동의 결과들이 회지를 통해 적절히 전달되고 자료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련분야의 정보제공은 학회내 각 분야별 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분야에 있어서의 최신정보와 흐름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UR로 말미암아 개방화시대, 무한 경쟁시대 속에서 생존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 건축계도 국제화, 정보화의 커다란 흐름속에서 세계 여러나라들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고 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건축의 각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뒤지지 않도록 대처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현재 회지가 안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정보의 가치성과 전문성이다. 기본적으로 정보는 현재성과 미래지향성이 함께 내포되어 있을 때 정보로서의 가치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제공은 기본적으로 각 분야별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정보화·국제화·고령화·도시화라고 하는 사회전반의 새로운 조류에 대해 학회내 소위원회의 조직구성도 고려하지설계회 위원회, 건축정보화 위원회 등과 같이 전문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회지는 이들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로 걸쳐 국내외 관련정보가 제공되는 매개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회지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증대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정보의 교환과 정보제공방법을 제안하고 싶다. 회지는 반드시 지면을 통해서만 정보를 전달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현대 정보화 사회는 많은 정보들을 언제 어느 곳에서나 자신이 원하는 관련정보를 간단히 제공해 받을 수 있는 사회이다. 이제 건축학회지도 회지에 게재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향후 통신서비스 등을 통해 손쉽게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하여 보다 학술의 연구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

## 21세기 건축학회 회지에 대한 의견

문 창 호

Moon, Chang-Ho

정회원, 군산대 건축공학과 조교수

사의 경우, 필요하다면 학회차원에서 책임자의 참여를 지원 및 독려하여 학회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사 결과가 회지에 요약 발표되도록 하여 회원들의 관심을 높게 한다. 이렇게 되면 회지는 명실공히 국내 건축계에서 최고의 뉴스레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회지의 국제화 추구

필자가 스웨덴과 벨기에 연수시 건축과 도서관에 가보았을 때 각국에서 발행된 건축관련 잡지·학술지가 모여져 있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발간된 건축관계 잡지·학술지들을 이루나 일본에서 온 것도 눈에 띄었다. 한국에서 온 잡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

### 머리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21세기를 준비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기술혁신을 비롯하여 환경여건의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건축학회 회지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뉴스레터 성격의 보강

전문적 학술지인 건축학회 논문집이 별도로 발행되기 시작한 이후, 회지는 아무래도 뉴스레터 성격을 갖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국내외의 건축관계 세미나, 심포지엄, 전시회, 설계경기 등 각종 건축관계 행사를 안내 홍보하는 기능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회지 안표지나 적당한 위치에 주요 행사 일정을 고정적으로 게재하여, 건축계의 장·단기적인 행사를 회원들에게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다(그림. 국제병원연맹(IHF)의 잡지 "World Hospitals and Health Services" 속표지 참조). 물론 각 행사별로 시기가 임박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행사를 안내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외 건축관계 행사가 끝나면 반드시 결과를 회지에 게재하여 관심있는 회원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한다. 국제적인 행

## Dates for your diary

### 1996

20-26 March	<b>Field Study Course</b> 'Hospitals in France'	France (Paris and Western France)
1-3 April	<b>Pan-Regional Conference</b> 'Creating a New Vision of Hospitals'	Hong Kong
9-12 April	<b>International Seminar Series</b> 'The Management of Health Services'	Malaysia (Kuala Lumpur)
28 April-3 May	<b>World Health Forum (by invitation only)</b> 'Health Professionals—The New Breed'	USA (Fort Worth)
1 July-31 August	<b>36th Course for Senior Hospital and Health Service Managers</b>	United Kingdom (Birmingham)
September	<b>International Health Symposium in French (by invitation only)</b>	Italy (Rome)

### 1997

April	<b>Field Study Course</b>	South Africa (tentative)
July-September	<b>37th Course for Senior Hospital and Health Service Managers</b>	United Kingdom (Birmingham)
18-21 Nov.	<b>30th International Hospital Congress*</b>	Australia (Melbourne)

### 1998

June	<b>Pan-Regional Conference*</b>	Brazil (Sao Paulo)
Sept./Oct.	<b>Field Study Course</b>	Austria (tentative)
November	<b>International Seminar Series</b>	India (tentative)

1. Events marked \* are interpreted into English, French and Spanish.

2. Unless stated otherwise, events will be held in English.

3. Please note that IHF members will automatically receive brochures and registration forms on the above events.

4. IHF members receive a discount on Congresses, Pan-Regional Conferences and Field Study Courses.

For further information on any of the above events, please contact *Mme Nathalie Gerverun* at the International Hospital Federation, 4 Abbots Place, London NW6 4NP, UK.

이 아쉬웠다.

건축학회가 국제적인 학술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회지의 영어판 출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1년에 1회라도 그간 건축계의 행사와 학술적인 성과들을 정리하여 영어판을 제작할 필요가 있고, 홍보차원에서 세계 각국의 주요 학술단체, 대학, 연구소 등에 송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학술 및 회원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12월호 회지에는 학회논문집의 총목록이 수록된다. 내용을 보면 단순히 발간된 순서에 따라 호수, 논문제목, 저자, 페이지 등으로만 구성된다. 그러나 당해년도에 발행된 논문을 호수뿐만 아니라 주제별, 저자별로도 정리하여 게재하는 것이 회원들에게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매년 이러한 정보들이 누적된다면 더욱 가치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회지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 내용이나, 학회에서 발간되는 회원명부를 비롯한 각종 자료에 실린 회원정보가 정확하지 못한 경우를 발견하곤 한다. 필자가 회지 특집기획 관계로 건축교육백서와 회원명부를 참조하여 전화연락을 해보았는데 회원정보가 부정확한 경우가 많았다. 주소나 전화번호가 원래 잘못 입력되었거나 변경되었는데도 아무도 자료를 갱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천리안이나 인터넷과 같은 상업 네트워크에 건축학회 코너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도 회원들의 정보교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회지의 중요 내용을 비롯하여 행사안내가 여기에 실린다면 정보전달이 신속해질 것이다. 특히 학술논문과 회원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네트워크에 올려놓으면 회원들이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으며, 혹 잘못 입력된 것이나 변경된 정보는 당사자들이 수정할 수 있게 한다면 항상 최신의 새로운 정보가 유지 제공될 수 있다.

### 건축작품에 대한 지면활애

건축에서 중요한 분야인 설계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에서나 국

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작품이나 설계경기는 회지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대중적인 건축잡지는 건축작품에 대한 조형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사진 자료와 설계자의 감상적인 글을 기사화한다.

그러나 회지는 대상 건축작품을 보다 학술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국책사업이나 국제적인 설계경기후에는 이를 특집으로 꾸며서 건축작품이나 작업과정에 대한 설명, 해설, 평론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회지에 대한 의견

# 앞으로의 「건축」

박재승

Park, Jae-Seung

정회원, 한양대 건축공학과 부교수

1945년 9월 1일 조선건축기술단으로 발족한 대한건축학회가 1996년 1월호로서 지령 200호 기념 특집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국내 최고의 건축 전문지로서 미래지향적인 학회의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과 개방화에 부응하는 국제적 학회로의 도약이라는 대명제를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건축」은 확고한 위치를 구축해왔다고 할 수 있겠다.

지난 반세기동안 「건축」의 역할이 건축학계의 연구환경의 기반조성과 연구인력의 확대라는 허부구조의 구축에 집중되어 왔다면 앞으로의 반세기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걸맞는 세계속의 건축학회로의 도약이라는 질적 도약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건축」의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맞는말

건축학회 회지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발전해왔으며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도약을 위한 준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회지는 뉴스레터 성격의 보강, 회지의 국제화 추구, 학술 및 회원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건축작품에 대한 지면활애 등을 포함하여 보다 친근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을 차지하고 있는 특집난은 다양한 건축분야의 주제들이 전문가들에 의해 집필된 것으로서 95년도의 주제만 살펴보다라도 수도권 신도시 점검, 건축과 윤리, 공동주택 재건축의 현황과 대책, 건축이론과 비평분야의 교육과 접근방식, 현대건축과 실내환경, 건축구조기술의 현황과 실제, 예술과 건축 등 도시문제, 건축비평, 건축환경, 건축구조 등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하고 있다. 특집난은 관계분야에 있는 회원들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으므로 더욱 현실감있는 주제들로서 전문화, 다양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부분은 신기술 소개란인 것 같다. 기술의 의미를 단지 건축구조나 시공기술로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다른 건축 분야의 새로운 해외 기술의 정보

등을 소개하는 창구로서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 같다. 예로서 새로운 디자인의 접근방법, 새로운 CADD기법, 새로운 설비의 국내 소개 등, 국내의 신기술 및 정보의 교류와 소개란으로서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반세기 동안 개방화에 부응하는 국제적 학회로의 대명제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이 추구해야 될 사업은 필자의 판단으로는 해외 홍보(PR)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적으로 볼 때 건축학회를 구성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에 불과하며 미국과 같은 국가에도 건축가협회(AIA)는 있어도 학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학회 창립 반세기를 맞고 있고 지령 200호를 자랑하는 학회지의 역사를 갖고 있으므로 예로서 1년에 1~2회 정도, 6개월~1년의 내용을 종합한 영어로 제작된 「건축」을 만들어 세계의 건축학회 및 건축가협회 등에 배포한다면 우리 학회의 활동상을 외국에 알리는 동시에 아직 학회를 구성하고 있지 못한 많은 나라들에게 하나의 선도적인 시금석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다시말해 국제화, 개방화 시대의 건축정보 교류의 산실로서 대한건축학회지 「건축」이 일본이나 중국의 건축학회에 앞서서 행동을 취한다면 아시아권 뿐만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건축학의 전문지로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많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부연하여 말하고 싶은 것은 학회지와 같은 방법으로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도 연 1~2회 정도 영어판으로 제작하여 국제적으로 보급시켜 우리의 건축 분야의 연구의 업적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동시에 해외 논문의 기고도 적극 권장한다면 국제화 시대에 연구정보의 교류 및 증진의 장으로서 논문집의 세계화도 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건축전문의 종합적 논문집이 전무한 실정이고 보면 이 또한 도전해 볼 미개척 분야가 아닌가 싶다. 학회 논문집이 국내에서 엄선된 논문과 해외기고 논문을 종합한 건축전문 국제논문집으로서 위상을 잡게 된다면 학회논문집의 획기적인 활성화 및 세계화가 가능하리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

그 나라 건축가의 환경 또한 도움이 되는 애기였다.

우리는 흔히 좋은 쪽으로만 외국은 어떻더라 하는 얘기를 흔히 들곤 한다. 통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인의 경험에서 보면 현실결여적인 얘기가 많은 것 같다. 작년 프로야구 관중들의 괴멸된 응원이 문제가 될 때, 한 조간신문에 미국의 미식축구장은 참 질서있게 응원하더라는 한 기자의 글이 있었다. 만일 그 기자가 평범한 미식축구경기가 아닌 챔피언 결정을 봤더라면 그렇게 얘기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불이 나고 관중들이 질려 사상자가 나오고 싸움에 벌어졌다는 선전 서유럽 축구장을 그 기자는 가보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요새 많이 얘기되는 교육 개혁과 관련해서도 막연히 외국대학은 입학도 쉽고,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것을 맘대로 공부할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얘기는 완전한 오해이다. 그곳도 우리 식으로 얘기해서 소위 백화점식의 명문대학이 많이 있으며 그곳에 들어가려는 노력은 우리보다 더하다고 본다. 다만 명문대라고 평가되는 과정, 내용 그리고 입시제도가 우리와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리는 선진국은 신호등이 켜지면 절대로 사람들이 길을 건너지 않으며, 또한 차가 오면 차레로 줄을 서서 탄다고 어릴 때부터 배워 있었다. 물론 본인이 경험한 미국의 한 동네의 특성일 수도 있지만, 신호등에 상관 없이 사람들은 차가 안오면 수시로 길을 건너가곤 했고 쓰레기도 길에 널린 곳이 많았으며, 입석 기차를 탈 때는 서로 먼저 타려고 아우성도 치곤 했었다. 또 외국의 건축대학 교육이 일반 주립대도 우리의 대학들보다 우수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석사과정의 경우 실제로 경험한 미국대학의 건축교육이 우리보다 그렇게 우수하다고는 느끼지 못했다. 다만 외국이라는 환경,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들과 학생들의 공부하는 분위기가 좀 차이가 날 뿐이었다.

사실이 길었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도 이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도 솔직하게 우리의 내부를 보여주고

## 회지에 대한 의견

# 건축지의 국제화를 바라며

이 경 훈

Lee, Gyeong-Hoon

정회원, 인제대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얼마전 미국 설계사무소에 근무하다가 귀국한 동기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동기의 얘기는 요약하면 한국의 많은 건물들이 상당히 고급스럽다는 것이었다. 대리석을 외부에

타일처럼 바른 것을 보고 자신은 좀 놀랐다는 것이다. 미국 설계시장에 막연한 동경을 갖고 있던 다른 동기들에게는 이 얘기와 더불어 나온, 우리와 비교해도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좀 창피한 것이 있으면 어떤가. 건축학회지가 이제 200호를 맞이하였고 건축 시장도 세계를 향해 뛰고 있다. 이 정도의 연륜과 배경을 갖고 있는 우리의 유일한 학회지 건축지가 이제는 세계속에서 솔직함과 자신감을 가져야겠다. 외국의 학회지를 동경어린 눈으로 볼 필요는 없다.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속에서 학회를 꾸려나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대학교수들, 대학원생들, 그리고 산업체의 주역들 대부분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국내 유일의 건축학회지가 국제적 학술지로 탈바꿈을 못해서는 안된다. 외국에 나가면 집을 잘 짓고 국내에 들어오면 부디 올해에는 건축지나 학회논문집이 국

제적 학술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시작하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 잘 못짓는다는 건설회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학계마저 심어줘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월간으로 발간될 만큼 많은 연구 성과를 갖고 있는 논문지가 국내 논문 발표 대기장으로 마냥 서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논문의 질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모든 논문이 우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외국의 학회논문이나 박사논문도 수준이하의 것이 눈에 띄는 경우가 있다. 논문을 쓰다보면 우수한 것도 나오고 좀 떨어지는 것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단지 발전의 계기로 삼으면 될 것이다. ㄷ

여러가지 단계가 있는 듯하다. 어떤 것에 '공감'하기도 하고, '동감'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는 하되 그 이상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은유적이건 직설적이건, 아니면 역설적 표현이건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 어떤 표현이건 화자의 입을 떠난 이른바 '소리'가 이미 과거이고, 가리켜지는 대상과 빛 또한 과거의 것이며, 하물며 공감 또는 동감이라고 하는 그 단어마저 과거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왠지 인간적이지 않아 보이는 뻘뻘한 썰렁함이 감돌 것이다. 그러나 그 '썰렁함'의 근원을 따져보자. 우리 모두 대뇌에서는 그 과거의 것에 시차와 오해, 왜곡을 두면서도 가슴으로는 동감 또는 공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형에서 이야기하면서도 현재이기를 원하고, 그래서 '같음'이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갈릴레이 시대에 발한 빛을 바로 지금 보면서 절대로 갈릴레이와 공감하지 못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이 글이 읽히는 순간과 반발 또는 동조의 느낌이 이는 순간과의 사이에 수많은 찰나가 존재하는 것처럼.

굳이 한자와 사전을 확인하여 共感은 '남의 의견에 대해서 자기도 그러하다고 느끼는 것'이고, 同感은 '남과 같은 느낌을 갖는 것'이라고 구분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느낌 자체가 갖는 허구성에 회의적이 되는 것은 그다지 힘들지 않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열심히 공유하기를 원하고 공감하기를 원하고, 동조하기를 원하고 동감하기를 원한다. 비록 상대에게서 시작된 소리의 파장이 나에게 전달되는 것에 불과하더라도, 그 파장은 이미 수초전에 상대의 입을 떠난 것이고, 그 파장이 발생하기 전에 화자의 뇌속에서는 찰나적인 시차가 있었던 것이고, 그 찰나 전에는 외부에서 제 공되는 어떤 사건이 이미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소리에 가슴이 뭉클하고, 그 느낌에 동참한다. 아니, 적어도 그 시차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애써 무시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욕구이다. 그런데 그 욕구가 받아들여지고, 그 욕구에 공감할 수 있는

## 회지에 대한 의견

# 무어라 고하리까?

이 현 희

Lee, Hyun-Hee

정회원, 중경산업대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최근의 유행어 중에 '썰렁하다'는 말이 있다. 그 뜻을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그 대답 또한 같았다. '썰렁하다'는 것은 썰렁하다는 그 자체이며, 그 이상 어떤 설명도 붙여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주변의 학생들도 그 대답에 아주 공감한다는 듯이 끄덕였고, 오히려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필자를 이상스럽다는 듯이 보았다. 단어 하나로 그 기분과 분위기, 또는 그 전율적인 화자의 가슴진동마저 공유할 수 있다는 표정들이었다.

'썰렁하다'는 단어의 유의어를 찾아보았다. '짜늘하다'는 단어가 눈에 들어온다. 그렇기도 하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런데 '짜늘

하다'의 유의어를 찾았더니 냉랭하다, 쌀쌀하다, 냉하다, 춥다, 차갑다, 냉정하다, 차다 등의 단어가 나열되어 있다(우리 과 학생들이 즐겨하는 표현으로).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한다리 건넜더니 아주 다른 느낌으로 왜곡되어 버린다.

인간의 표현은 복잡한 감정만큼이나 미묘하게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때는 은유적으로 또 가끔은 역설적으로 묘사된다. 그리고 직설적 표현과 행동으로 치닫는 경향도 없지 않은 것 같고, 그것이 신세대다운 것으로 여겨지는 때도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인간의 느낌을, 특히 감정적인 느낌을 공유하는 데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뜨거운 가슴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감히 생각한다. 하물며 그 어떤 부류보다 뜨거운 가슴을 소유하였음을 자부하는 건축인임에랴. 그 표현은 더욱 다양하고, 더욱 진한 공감 또는 동감을 원하면서 극단적으로 자기 만족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왜냐면 극단적인 동감은 바로 공감일 수도 있으나, 결코 '바로 그 것'은 될 수 없으며, 그 왜곡은 자기만의 표현으로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머리로는 시차와 왜곡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글을 쓰는 필자는 감히 그것을 초월한 상태를 원하고 있다. 썰렁하다는 하나의 유행어에 어리던 그 표정들처럼, 우리 건축인들의 가슴이 담긴 「건축」지가 되기를. 열심히 고민하고 있다. 창립 50주년을 기념한 우리 학회의 지령200호 대기념 특집호에서 이 기분을 어떻게 표현하면 그 시차와 왜곡을 줄일 수 있을 것인지.

머리에 떠오르는 것, 오직 무어라 고하리까? ㄹ

면 연구 발표회와 강연회의 활성화, 학회지와 별도로 논문집이 간행되는 등 실로 눈부신 변화와 발전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업적의 장려와 표창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 축적을 도모하기도 한다. 또한 학회지는 수시로 특집을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건축과 건축술에 대한 소개와 토론을 주도하며, 건축포럼과 자유기고 또는 특별기고 등을 통해 건축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내고 있다. 학회지는 이 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그때그때 신속하게 소개하여 건축계 급속한 발전을 학술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불과 수년 후면 새로운 시대인 21세기가 전개된다. 21세기에 나타날 새로운 건축 환경에 대비하여 학회지는 한국건축 발전의 향도 역할을 전보다 충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관점에서 학회지가 한국건축의 지속적인 발전의 구심점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 회원 전체가 적극적으로 학회 활동에 참여하여 학회를 활성화하고, 이것이 학회지 편집에도 반영되어야겠다. 이는 회원들의 공감대 형성과 공적인 여론을 주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학회 활동을 살펴볼 때 지방에 있는 회원들에 대한 배려가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소외된 회원 없이 모든 회원이 열의를 가지고 학회 활동이나 학회지 편집에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전국의 각 대학 건축학과 및 관련 학과의 연구 및 교육 활동의 소개를 통해 상호간의 학술 및 학생, 교수간의 교류를 유도하고 매개하는 학회지가 되었으면 한다. 각 대학에서 수행중인 연구 내용의 소개와 석박사 논문의 리스트를 게재한다면 학회가 학술적인 정보 및 자료교류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세계의 건축계와 당당히 교류할 수 있는 주체성 있는 한국 건축 이론의 개발과 체계화에 앞장서는 학회지가 되었으면 한다.

## 회지에 대한 의견

### 온고지신(溫故知新)

이 호 열

Lee, Ho-Yeol

정회원, 밀양산업대 건축공학과 조교수

건축학회지 「건축」이 통권 200호를 맞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무엇보다도 건축계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과 같은 전문 건축 학술지의 면모를 다지는 데 힘쓰신 선배 건축인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학회지의 변화된 면모를 살피기 위해 15년 전에 간행된 학회지 「건축」 100호(1981. 5-6월호)를 펴 보았더니 거기에는 실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있었다. 학회지에 대한 의견으로 “지령 100호를 비약의 계기로”, “경사중고언(慶事中暑言)”, “건축학회 및 학회지의 향후 과제”, “키가 커서 쥐는 불편함”, “건축만화”, “대한 건축학 회지에 대한 건축인의 기대” 등이 있었다. 이들 의견들은 학회 및 학회지가 연구 발표회, 강연회,

건축회 개최나 연구 조사 및 연구의 장려, 연구업적의 표창, 국내외 관련 학회와의 협력 활동 등을 보다 활성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학회지의 발간이나 도서 및 기술 정보지 등의 발간 등과 같은 학술적 성과와 자료의 집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일년에 한두 번은 학회지를 특집으로 꾸며 그때그때 사회가 요구하는 건축물에 대한 실상과 허상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현실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당시 제시되었던 다양한 의견들이 오늘날과 같은 학회와 학회지로 그 면모를 일신하는데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참으로 귀중한 의견들이었다. 오늘날의 학회 활동상을 살펴보

지금까지의 우리 건축계를 뒤돌아 볼 때 서구 중심의 건축 이론이나 건축술을 교육하고 답습하는데 급급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외국에서 생산한 학문적 성과를 수입하는데만 몰두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장차 21세기는 한국 건축의 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독창적인 건축 이론 및 건축술을 창조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는 학문

의 주체성의 문제로 창의적인 건축 이론의 개발 없이는 신적인 한국 건축의 제문제를 해결할 없음은 물론 세계 각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건축 교류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 학회지가 한국건축계를 대표하는 최고의 학술지로 더욱 발전하여 국내는 물론 외국의 많은 건축인들로부터도 호응받는 국제적인 건축 전문학술지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

은 종이몽치인지 분간이 안 가는 상업지들의 요망스런 돈벌이에 아직도 열심히 호응해 주는 독자들의 아둔함이 그렇고, 소수의 논문 준비 학생들을 위한 따뜻한 배려가 가장 큰 이유인지, 아니면 실적의 과시용인지, 그도 아니면 회비에 대한 시혜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퍼 들면 골치부터 아파오는 기관지 내지는 협회지들.

책을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 터진 입, 얻어들은 풍월이랍시고 씨부렁거리는 염치가 내게 있어도 괜찮은지, 일종의 범죄의식을 가진다.

늪을수록 좋은 건 호박과 골동품뿐이라는 데, 거기에 「건축」자가 버젓이 끼어 들었으면 좋겠다. 지령 200호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

## 늪을수록 좋은 건 호박뿐?

최 경 호

Choi, Kyung-Ho

월간 건축문화 편집부장

우선, 책은 재미있어야 한다. 무릇 세상의 모든 일이 의도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없듯이, 누군가에 의해 보여지고 읽혀지길 바라는 책의 속성을 감안한다면, 우선 책의 임무는 재미있음에 있다.

논리정연한 말씀씨를 자랑하는 사람의 얘기는 대체로 재미가 적다. 모든 사물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쪼개어 놓기 때문이다.

글을 읽으면서, 얘길 들으면서 좇는 상상의 즐거움, 그것이 재미있고 기쁨이다.

달달달 외워서 쏟아놓는 지식은 기억력의 조종술일 뿐 참치식이 못된다. 몸소 겪은 다양한 체험과 행함으로써 얻은 자각의 증언이 듣고 읽는 이를 즐겁게 하고 감동시킨다.

규격화 또는 정형화의 반대 개념으로 개성의 뚜렷함을 들겠다. 개성의 뚜렷함도 재미위에서라야 더욱 또렷한 개성을 지닐 수 있다.

정책적으로 만든 프로퍼갠더 필름에 관객이 들지 않는다거나 몇 수년, 몇 십년 기념호

프론트 페이지를 일출사진과 함께 장식하는 신문의 프로퍼갠더 포엠이 싱거운 자작극으로 끝나버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개성과 재미를 동시에 잃고 있음에서다.

의무적으로 만든 책 속에 틀은 있으나 빛이 없다. 책 속에 길이 있다잖은가. 현재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미래를 끈게 열어 줄 길이 책 속에 있음으로 해서 그것은 때론 재미있고 때론 도도하기까지 해야 한다.

좋은 책이란 보편성에 있다. 높은 것과 낮은 것으로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서든 새로운 세계로 눈뜬 그런 책이 좋은 책이다. 그렇게 알고 있다.

다는 아니지만, 요즘 책세상 돌아가는 모양새가 어수선하다. 사내 동정과 청탁한 수필 또는 폰트 한 편, 사우 문예란, 낱말 맞추기 등으로 이어지는 대다수의 사보류는 공짜로 배달되기에 그냥 받아서 뒤적거리다 버린다. 광고 카탈로그인지, 정해진 면수만큼 묶어놓